

장장근건과 전완유리피판술을 이용한 성대와 인두 재건술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김민식 · 박경호* · 이종우 · 이근석 · 조승호

배경 및 목적 : 대개의 인후두암은 상당히 진행된 후에 진단되어 기능적인 면을 유지하면서 종양학적으로 안전하게 넓은 수술적 절제가 어렵다. 이러한 원칙하에 여러 많은 술기가 알려져 있으나 그 어느 것도 만족스러운 것은 없다. 최근 장장근건과 전완유리피판술을 이용한 성대와 인두의 재건 방법이 소개되었으며 이는 종양학적으로 안전하며 기능적으로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저자들은 외측으로 위치한 인후두암 환자에서 이 술기를 이용하여 그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3명의 환자에서 장장근건을 포함한 전완유리피판술을 이용하여 후두와 인두를 재건하였다. 2명의 하인두암 환자(T2N0M0)에서는 wide vertical hemilaryngopharyngectomy를 시행하였고 1명의 상후두암 환자(T2N0M0)

에서는 horizontovertical laryngopharyngectomy를 시행하였다. 연하 기능은 modified barium swallow로 평가하였고 언어 기능은 언어 치료사를 통해 검사하였다.

결 과 : 평균 관찰 기간은 29.3개월이었고 재발은 없었다. 언어기능은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만족스러웠으며 구강식이도 가능하였다. 구강식의 시기는 술후 26일에서 53일 사이였다. 삼관 제거 시기는 71일과 30개월 사이였다.

결 론 : 외측으로 위치한 후인두암 환자에서 전완유리피판을 이용한 후두와 인두의 재건술은 만족스런 기능적 결과를 가지면서 넓은 수술적 절제가 가능한 유용한 술식이라 생각된다.